

정지용의 시 「무서운 시계」를 바르게 읽는 법

- 〈시계 소리 서마 서마 무서워〉의 경우 -

권영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일본 동경대학교 교환교수

1. 시적 언어에 대한 해석

유종호 교수가 펴낸 『시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첫번째로 인용되고 있는 작품이 정지용의 「무서운 시계(時計)」라는 시이다. 유종호 교수는 이 시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뜻을 묻고 간단한 논평을 하도록 요구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 논평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 문학 교육의 현상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 유 교수의 결론이다. 우선 시 「무서운 시계」를 보기로 하자.

오빠가 가시고 난 방안에
숯불이 박꽃처럼 새워간다.

산모루 돌아가는 차, 목이 쉬여
이밤사 말고 비가 오시라나?

망토 자락을 여미며 여미며

검은 유리를 내어다 보시겠지!

오빠가 가시고 나신 방안에
시계(時計)소리 서마 서마 무서워.

이 시에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특성에 대한 유종호 교수의 설명은 매우 친절하다. 시의 마지막 구절인 〈시계 소리 서마 서마 무서워〉에 대해서도 유 교수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어린 소녀가 화자로 되어 있는 동시 흐름의 단시이다. 〈새워간다〉는 우선 〈새우다〉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한숨도 자지 않고 온밤을 밝힌다는 뜻이 될 것이다. 그런데 박꽃은 회다. 숯불이 하얗게 밤을 새운다는 것은 시각(時刻)으로 보아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새워간다〉는 불이 사그러져 재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사위다〉의 변형일 것이다. 〈사위어가다〉가 〈새워가다〉로 된 것일 터이다. 여기서 맞춤법상으로 잘못 쓰인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숯불이 박꽃처럼 사위어간다〉고 하는 쪽이 나으란 법이 없다. 〈밤을 밝힌다〉는 뜻으로 읽건 〈사그러져 재가 된다〉는 뜻으로 읽건 혹은 두 뜻의 복합으로 읽건 둘째 줄을 박꽃과 연결시켜 생각한 응답은 극히 적었다.

〈산모루 돌아가는 차〉는 기차일 것이다. 산모루는 산마루 혹은 땃등이랄 수도 있겠고 산모퉁이를 뜻할 수 있을 것이다. 〈목이 쉬여〉는 기적 소리가 여느 때와는 달리 들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목이 쉰다〉의 원뜻은 말할 것도 없이 목소리가 맑지 못하고 거칠어진 것을 뜻한다. 이 대목은 4행째의 〈이밤사 말고 비가 오시랴나?〉와 연결시킬 때 그 뜻이 분명해진다. 비 오기 전 저기압이 되면 기적 소리가 더 가깝게 들린다. 평소엔 들리지 않던 기적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다. 〈이밤사〉의 〈사〉는 김동리의 「젤레꽃」 첫머리에 나오는 〈올해사 말로 유달리 보리 풍년이 들었다〉는 대목의 〈사〉와 같은 것이다.

어깨 위로 둘러 걸쳐 입도록 한 소매 없는 외투인 〈망토〉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의 제작 시기가 1920년대 혹은 1930년대일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할 것이다. 신파의 등장 인물이 입었던 외투이다. 드러내 놓지 않은 오빠에 대한 동기간의 정이 잘 나타나 있다. 마지막 줄 〈時計소리 서마 서마 무서워〉의 〈서마

서마)는 아마도 정지용 자신이 만들어 낸 조어가 아닌가 생각된다. 「종달새」라는, 역시 동시 흐름의 작품에서 그는 종달새 소리를 <지리 지리 지리리>란 의성어로 표현한 적이 있다.(작품 인용 생략) 이러한 의성음은 그의 발명이자 창작이다. <서마 서마>가 설마 시계 소리의 의성음은 아닐 것이다. 어린 소녀의 얼마쯤 두렵고 외로운 심정을 나타내는 말일 것이다. 낮설거나 어색한 것과 연관된 <서먹서먹하다>란 말을 유추적으로 변형시킨 것일 거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신상이나 집안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일상의 낮익은 것이 갑자기 낯설어지면서 불안이나 고독감을 더해 준다는 것은 우리들 공통의 유년 기억의 하나일 것이다. 평소 심상하게 들리던 시계소리 같은 것도 갑자기 낯설게 들리는 것이다. 심상하던 것이 생소해지면서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시란 무엇인가』 17-18면)

유종호 교수가 <서마 서마>라는 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방향을 다시 따라가 보자. 유 교수는 이 말이 정지용이 만들어 낸 새로운 조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시계 소리의 의성어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심한다. 그러나 <서먹서먹하다>라는 말의 유추적인 변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소녀가 지니고 있는 두렵고 외로운 심정을 표현하는 말로 <서마 서마>의 뜻을 풀이하고 있다. 결국 <서마 서마>라는 말은 앞의 인용대로 한다면, 정지용의 새로운 조어일 가능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말은 <서먹서먹하다>라는 말에서 유추적인 변형을 일으킨 것으로, 두렵고 외로운 심정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의 과정은 사실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다. 정지용과 같은 시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가정부터 바르지 못하다. 시인이 전혀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 오히려 일상 생활 속에서 쓰는 말 가운데에서 그 특이한 묘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시 속에 그것을 담아 놓음으로써 그 말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 넣는 경우가 더 많다. 이것은 새로운 언어의 창조가 아니라 언어의 발굴이라고 할 수 있다.

2. 일상어의 시적 발굴

우선 <서마 서마>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 말은 시계 소리의 의성어

도 아니고 <서먹서먹하다>에서 유추적인 변형을 일으킨 말도 아니다. 정지용이 새롭게 만들어낸 조어는 더구나 아니다. 이 말은 충청도 지방에서 흔히 쓰이는 형용사 <서마서마하다>에서 파생한 부사이다. 한글학회편 「우리말 큰사전」이나 이회승 편 「국어대사전」에는 이 단어가 올라 있지 않다. <서머서머하다>라든지 <서먹서먹하다>와는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 이 말은 <어떤 일이 걱정이 되어 마음 줄이다>의 뜻을 지닌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가 나무 위에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이 되는 경우에 “서머서마해서 못 보겠다”라고 말한다. “조마조마하다”라는 말과 그 의미가 유사하다.

이같이 <서마서마>가 일상어에서 쓰이는 용례를 전제하면서 정지용의 시 「무서운 시계」를 보다 더 면밀하게 읽어 보자. 이 시의 전반부 두 구절은 시적 정황에 대한 묘사가 위주가 된다. 집을 나서 밤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떠나는 오빠와 그 오빠를 생각하는 소녀가 있다. 소녀가 앉아 있는 방안과 기차가 돌아가는 산모루가 모두 공간적인 것이라면, 박꽃처럼 사위어가는 숯불은 시간적인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멀리 들리는 기차 소리는 오빠와 소녀 사이의 멀어지는 거리를 말해 준다. 그리고 기차 소리의 거리감에 비가 올듯하다는 느낌이 덧붙여진다.

시의 후반부는 기차를 타고 가는 오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빠가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길 바라며 마음 줄이고 있는 소녀의 모습이 등장한다. <서마 서마>라는 말이 일상적인 언어에서 시적 언어로 바뀌면서 불러일으키고 있는 정서의 진폭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세 번째 구절 “망토 자락을 여미며 여미며//검은 유리를 내어다 보시겠지!”는 소녀에 의해 상상된 오빠의 모습이다. 오빠의 경우도 집을 떠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안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망토 자락을 <여미며>라는 동사가 두 번이나 거듭 쓰인 데에서 오빠의 마음이 잘 암시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절에 뒤이어 나온 마지막 구절 “오빠가 가시고 나신 방안에//시계(時計)소리 서마 서마 무서워”에서 이 시는 정서의 긴장을 고조시킨다. 사방이 고요하고 시계소리만 더 크게 들린다. 오빠를 멀리 떠나 보낸 허전함과 공허감이 시계소리를 통해 구체화되지만, 오빠가 무사하기를 걱정하는 소녀의 심정이 더욱 긴장을 드러낸다. 밤기차를 타고 집을 떠난 오빠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기를 바라며 마음 줄이는 소녀의 심정이 바로 <서마 서마>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 정서의 긴장을 언어로 포착해내는 방식을 이처럼 극명하

게 보여주는 예는 달리 찾기 어려울 듯하다.

이 시에서 〈서마 서마〉라는 말이 드러내 주는 조바심과 두려움의 의미는 오빠에 대한 소녀의 걱정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본다면 이 말은 일상적인 언어적 용법에서 사실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정지용은 일상어에서 이 말을 찾아내어 자신의 시 속에 사용함으로써 묻혀 있던 말에 새로운 시적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3. 시인 정지용과 시적 언어

시인 정지용에게는 여러 가지 찬사가 따라 붙는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의 시적 세계의 특징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은 그가 한국 현대시의 역사에서 언어에 대한 자각을 각별하게 지니고 있었던 시인이라고 하는 점이다. 시적 정서의 표출을 거의 유일한 시적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1920년대의 시인들과 비교해 본다면, 정지용은 다양한 감각적 체험을 절제된 언어와 선명한 이미지를 통해 포착해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인의 정서를 오히려 절제하고 대상에 대한 감각을 표상하는 방법은 그가 철저히 인식했던 언어에 대한 자각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다.

정지용은 생전에 세 권의 시집을 내었다. 『정지용시집』(1935)과 『백록담』(1941)이 있고, 『지용시선』(1946)을 통해 자신의 시 세계를 정리하고 있다. 그의 시의 전모는 앞의 두 권의 시집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시에 있어서의 언어와 그 표현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일관된 특징으로 나타난다. 물론 그의 시 세계는 초기의 감각적인 이미지즘적 경향의 시를 뒤이어 1930년대 중반 가톨릭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적인 시가 있다. 그리고 일제 말기에 들어서서는 자연에 깊이 침잠하는 정신 세계를 그려낸 시가 많다. 감각적인 것에서 정신적으로 고양되고 있는 그의 시 정신이 긴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에 있었던 것은 물론이다.

바다는 뿔뿔이
달아나려고 했다.

푸른 도마뱀떼같이
재재발랐다.

꼬리가 이루
잡히지 않았다.

흰 발톱에 찢긴
산호보다 붉고 슬픈 생치기!

가까스로 몰아다 붙이고
변죽을 돌려 손질하여 물기를 씻었다.

이 앨슨 해도(海圖)에
손을 씻고 떼었다.

찰찰 넘치도록
돌돌 구르도록

회동그라니 받쳐들었다!
지구는 연잎인 양 오프라들고... 펴고...

(「바다 9」의 전문)

앞의 시 「바다 9」에서 드러나는 재기발랄한 심상이 드러내는 감각적 선명성은 후기의 시에 속하는 「백록담」이나 「장수산」과 같은 작품에서 더욱 절제된 감각으로 드러난다. 정지용 시의 감각과 정신을 선명하게 돌출시켜 주는 소묘적 언어의 정교한 회화성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이 시에서 그려지고 있는 바다는 대상으로서의 자연 그 자체는 아니다. “바다는 뿔뿔이 달아나려 했다//푸른 도마뱀처럼 재재발랐다”라고 표현되는 순간 이미 하나의 새로운 생명체로서 바다가 드러난다. 이 같은 비유적인 기법에 의해 순간적으로 포착한 심상에 시인의 날카로운 언어적 재기가 번뜩인다. “흰 발톱에 찢긴 산호보다 붉은 생치기!”라

는 표현도 매우 선명한 이미지를 드러낸다. 이 같은 표현은 모두 언어에 대한 깊은 관심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표현을 놓고 시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따지는 일은 사실 부질없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바다 위에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온갖 상상의 날개를 언어로 펼쳐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인간의 정서와 상상을 언어로 표현한다. 소설도 언어를 표현 수단으로 하지만, 시는 언어에 절대적인 비중을 두고 있다. 시는 산문과는 달리 울조의 언어로서 미를 창조하며, 시의 언어는 산문의 경우보다 더욱 함축적이면서도 감각적인 특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시는 압축적이고도 집중적인 언어의 형태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일상의 언어와 다른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시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 사이에 확연한 구별이 있지도 않다. 일상 생활에서 쓰이는 말이 시에서 쓰일 뿐만 아니라, 시에서 쓰일 법한 말이 일상 생활에서도 흔히 쓰이고 있다.

시의 언어는 일상의 언어에 바탕을 두는 것이지만, 일상의 언어가 지니고 있는 지시적인 기능을 넘어서 정서적으로 그 의미를 확대한다. 그러므로, 함축적인 기능이 살아나고 상징적인 의미의 공간을 새롭게 창조하게 되는 것이다. 시의 언어는 일상의 언어를 보다 높은 차원의 정서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려 그 의미를 심화시키고 확장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의 언어를 마치 일상의 언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의 언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시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일상적인 언어 규범을 어느 정도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의 언어 자체가 독자적인 의미의 세계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시의 언어도 일상어의 커다란 테두리를 크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앞의 정지용의 시 「무서운 시계」에 쓰인 〈서마서마〉라는 말이 정지용이 창조해 낸 새로운 시적 언어가 아닌 것처럼...